

제주공영버스 운영난 가중 올해 적자 1000억 넘을 듯

코로나19에 학생 등교개학 지연 등 영향
승객 30% 이상 감소... 무료 탑승도 늘어

지난 1월 말을 시작으로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지역 공영버스의 적자폭이 커지며 올해 적자분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늦춰지고 집밖 활동이 줄고 있는 데다 무료 승객 비율은 늘며 전체적인 이용 실적은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이상 축소되며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월 공영버스 이용객은 51만 2034명으로, 이 가운데 유료 이용객은 29만5369명(58.8%)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인 58만 3565명에 견줘 7만1531명(12.3%) 줄었다.

월별로 보면, 본격적인 코로나19

의 전국 확산 이전인 1월의 경우 15만8768명이 공영버스를 이용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1899명보다 1만6869명(11.9%) 늘었다. 하지만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이뤄지며 2월 실적은 12만 3073명에 그쳤고, 지난해 2월의 12만5169명에 비해서도 2096명(1.7%) 감소했다.

이후 3월 실적은 11만2562명으로 지난해 동월 15만5863명에 견줘 4만 3301명(27.8%) 줄었고, 4월에도 11만7631명에 그치면서 1년 전의 16만 634명보다 4만3003명(26.8%) 급감했다. 이처럼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신학기에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전면 등교 개학이 늦춰지면서 주요 승객인 학생들의 이용 실적은 크

게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유료 및 무료 이용객 비율은 지난해 7대3에서 올해는 6대4의 비율로 집계되며 실질적인 매출액 손실 규모는 작년 대비 3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주공영버스의 매출이 크게 줄면 올해 전체적인 적자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공영버스는 수익보다는 이용자 혜택이라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선 통·폐합과 버스 중·소형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등교 개학이 전체적으로 이뤄지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용률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는 연간 1000억원을 투입하는 버스준공영제의 적자 부담 가중에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표준운송원가 인상에 불가피한 상황이 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마늘 수매 기다리는 차량들 마늘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늘 주산지인 대정농협유통센터에 수매를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다. 강희만기자

도내 19세 이상 성인
흡연·음주↓ 비만은↑
2019 지역사회건강조사

제주지역 성인들이 흡연과 음주는 감소하고 있지만 비만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내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성인 흡연율의 경우 2017년 23.1%, 2018년 21.8%, 2019년 20.6%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흡연율의 경우 2017년 43.0%, 2018년 41.0%, 2019년 36.8%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역시 2017년 18.7%, 2018년 26.0%, 2019년 35.8%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의 월간 음주율은 2017년 62.6%, 2018년 60.1%, 2019년 58.8%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위험 음주율도 2017년 35.4%, 2018년 35.4%, 2019년 33.2%로 줄고 있다.

반면 성인들의 비만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의 비만유병률은 2018년 35.6%, 2019년 38.6%로 전년대비 3.0%p 늘었으며, 전국 비만유병률도 34.6%로 전년대비(33.8%) 증가했다. 이태윤기자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하마평

원 구성 논의 시동... '선출 톨' 사전조율 등 촉박

오는 7월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일정이 잡히는 등 원 구성 논의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후반기 원 구성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하는 만큼 당내 합의도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정 등을 위한 당내 '톨'을 정하는 과정이 잡음없이 원만하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7월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제384회 임시회(본회의 3일)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선임 등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진다.

아직 한달여가 남았지만 의회 안

팍에서는 차기 의장에 누가 낙점될지 다선 의원들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새로운 원 구성에 대한 관심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26일까지 후반기 의장단 등의 후보 추천자 확정 등 사실상 내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에따라 6월26일 예정된 의원총회에 앞서 사전 의원 간담회를 통한 '톨 세팅'에 나설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당내 3선 이상 다선 의원 중 전반기에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 보직을 맡지 않은 좌남수·김용범 의원이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은 관례대로라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되는데, 전반기에는 다수당 다선의원을 합의 선출하는 방식이 아닌 경선을 치른 바 있다.

의장선출이 자칫 '집안 싸움'으로 비칠 수 있고 경선에 대한 후유증이 큰 만큼 당내 일각에서는 '합의추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경선은 후유증이 커서 추대가 낫지 않겠냐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합의추대 분위기가 되면 다행인데 경선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톨'을 정리하고 관례와 규칙, 전반기때 논의됐던 내용 등 논란의 소지를 말끔히 정리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오늘부터 소규모 초·중학생 등교수업

27일엔 고2·초1~2·유치원 대상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이어 오늘부터 소규모 초·중학교에서도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5일 ▷우도초·중 ▷평대초 ▷성산초 ▷신례초 ▷시흥초 ▷온평초 ▷홍산초등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실시된다. 이는 교육부가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는 '낮은 학생 밀집도', '높은 돌봄 수요' 등의 이유로 등교수업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앞서 고3 등교수업이 실시된 지난 20일에 도 추자초·중 및 추자초 신앙분교가 등교수업을 개시했다.

이어 ▷27일 고2·중3·초1~2·유치원 ▷6월 3일 고1·중2·초3~4 ▷6월 8일 중1·초5~6 등이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도 학교를 다니게되면서 학부모들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초등학교에 저학년 자녀를

등교시키는 A(41·여)씨는 "등교 개학 연기로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에 큰 부담을 느꼈다. 공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하지만 아이가 워낙 활동량이 많아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다닐 수 있을지, 친구와 거리두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등의 걱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제작·배포한 '코로나19 대응 각급학교 현장조치 매뉴얼'을 보면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때마다 건강상태 파악·발열 체크를 진행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입실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한라일보 갤러리ED 개관기념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

제주, 제주 너머

2020. 4. 18 SAT - 7. 17 FRI



관람시간안내 평일 11:00~18:00 주말(土,日) 11: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문의 : 064-750-2543



채기선 작가와의 만남

· 5월 29일[금] 오후 3시
 · 갤러리 ED[한라일보 1F]

Gallery **I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변시지 / 강승희 / 채기선 초대전